

## 보도자료

제임스 바너의 《에버 영 *Ever Young*》

- 현대 사진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가나 태생 사진가 제임스바너(James Barnor)의 아시아 첫 개인전.
-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급변하는 현대 가나의 시대상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욕망과 아름다움을 표현해낸 주옥같은 사진 작품 34점 선보여.
- 60여년 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포토그래퍼로 활동한 제임스 바너의 사진들은 가나의 독립, 전후 영국(post-war Britain)에서의 블랙(Black)에 대한 사회적 경험,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포착한 포스트 식민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중요한 역사의 프레임을 제공.
- 그의 작품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런던에 정착한 흑인 공동체를 서구인과는 다른 시각을 통해 제시하며 식민시대 이후 새로운 아프리카의 정체성과 미를 창조.
- 제임스 바너의 사진은 서구 주류의 시각으로서 역사가 아닌 아프리카인의 주체적인 시각으로서의 역사를 재고할 수 있는 작품.

바라캇 컨템포러리는 2022년 3월 17일 (목) 부터 5월 8일 (일)까지 가나 태생 영국인 포토그래퍼 제임스 바너의 아시아 첫 개인전 <Ever Young>을 개최한다.

1929년에 가나 아크라에서 태어난 제임스 바너는 60여년 동안의 작품 활동을 통해 인물사진과 포토 저널리즘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었고 아프리카와 영국을 사진이라는 장르로 연결하며 끊임없이 초 문화적인 서사를 창조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1950년대 후반 가나의 독립과 더불어 급변했던 사회를 기록해낸 가나 최초의 사진 저널리스트이기도 하다. ‘에버 영(Ever Young)’은 1953년 제임스 바너가 가나 아크라에 연 자신의 첫 번째 스튜디오의 이름이자, 당시 가나의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가 꿈꿨던 새로움과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또한, 그의 작품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역사 속의 진실과 그것을 통해 현재를 새롭게 바라보길 바라는 희망의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다. 아프리카인 사진가로서, 그는 일생을 통해 가나와 영국이라는 두 대륙을 넘나들며 그만의 친근한 감수성과 예술성이 담긴 작품세계를 창조했다. 그의 작품은 가나의 독립과 1960년대의 코스모폴리탄 런던에서의 디아스포라 문화 등, 20세기 후반의 사회적인 변화, 기술적 혁신, 지정학적 역사 속에서 점차 변화하는 가나의 정체성이 반영된 역사의 순간들을 보여준다.

1층 전시장에는 1950년대 에버 영 스튜디오 시절의 초기 초상 사진들과 1960년대 런던 이주 후의 작품들이 소개된다. 에버영 스튜디오 사진들은 전기 공급이 불안했던 당시 가나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스튜디오 바깥의 자연광 또한 적극 활용하였다. 전형적인 스튜디오의 딱딱함에서 벗어난 에버 영 스튜디오에서 그는 갓 결혼한 신부, 젊은 여인, 간호사, 요기, 사무관, 배우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주변 사람들을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포착했다. <Drum Cover Girl Marie Hallowi, Rochester, Kent>, <Erlin Ibreck at Trafalgar Square> 등, 전시실 중심에 자리잡은 바너의 1960년대 작품들은 다문화 코스모폴리탄의 중심인 런던에서 드럼 매거진의 프리랜서 사진가로 활동하며 외부인의 호기심 어린 눈으로 런던의 1960년대 스윙(Swing)을 새롭게 포착한 사진들이다. 백인성이 두드러진 패션과 문화의 중심지에서 에린 이브렉(Erlin Ibreck), 마리 할로위(Marie Hallowi)같은 흑인 모델들을 포착한 그의 사진은 『드럼』 매거진의

표지로 등장하며 젊고 매력적인 아프리카 여성들의 품위 있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전했다. <Mike Eghan at Piccadilly Circus>과 같은, 그가 촬영한 1960년대 디아스포라의 초상들은 안목 있는 스타일 뿐 아니라 초기 흑인 운동 안에서의 그들의 희망과 끈질긴 인내를 담아낸다. 바너의 사진 작품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런던에 정착한 흑인 공동체에 대해 당시 주류였던 백인 유럽 사진가들의 시선이 아닌 아프리카인으로서의 주체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식민시대 이후 새로운 아프리카의 정체성과 미의 창조하였다.

2층 전시장에는 1970년대에 영국에서 가나로 다시 돌아온 바너가 가나에 최초로 컬러 사진 기술을 보급시키며 오픈한 그의 두번째 스튜디오 ‘스튜디오 X23’에서 촬영한 초상사진들과 파스텔 톤의 컬러 사진들을 선보인다. 이 시기, 바너는 낯선 타지에서의 풍요로운 경험 후 한층 섬세하게 다듬어진 감각으로 가나의 인물과 풍경을 담아 냈다. 우리에게 어떤 기억과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그의 사진들은 사진이 과거의 유물이며, 발생했던 일의 흔적임을 환기시킨다. 바너의 사진은 시간을 되돌려 우리의 현실을 재개념화하고 작가주의적 내러티브를 새로이 부여한다. 또한 그의 작품은 식민지 통치부터 1960년대 전쟁 후 영국의 ‘스윙 식스티’, 사회혁명을 통한 자유의 획득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역사 속 진실의 단면들을 드러낸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르는 그의 사진 작품들을 통해 새롭게 드러난 과거의 단면들과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모든 사진은 그저 포착된 순간으로만 존재하는 대신 다시 삶의 맥락을 얻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경험할 것이다.

## 전시서문

---

바라캇 컨템포러리는 2022년 3월 17일(목)부터 5월 8일(일)까지 가나 태생의 사진가 제임스 바너의 한국 첫 개인전 《Ever Young》을 선보인다. ‘에버 영(Ever Young)’은 1953년 제임스 바너가 가나 아크라에 연 자신의 첫 번째 스튜디오의 이름이자, 당시 가나의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가 꿈꿨던 새로움과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또한, 그의 작품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역사 속의 진실과 그것을 통해 현재를 새롭게 바라보길 바라는 희망의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다. 아프리카 사진가로서, 그는 일생을 통해 가나와 영국이라는 두 대륙을 넘나들며 그만의 친근한 감수성과 예술성이 담긴 작품세계를 창조했다. 그의 작품은 가나의 독립과 1960년대의 코스모폴리탄 런던에서의 디아스포라 문화 등, 20세기 후반의 사회적인 변화, 기술적 혁신, 지정학적 역사 속에서 점차 변화하는 가나의 정체성이 반영된 역사의 순간들을 보여준다.

1929년에 가나 아크라에서 태어난 제임스 바너는 60여년 동안의 작품 활동을 통해 인물사진과 포토 저널리즘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었고 아프리카와 영국을 사진이라는 장르로 연결하며 끊임없이 초 문화적인 서사를 창조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1950년대 후반 가나의 독립과 더불어 급변했던 사회를 기록해낸 가나 최초의 사진 저널리스트이기도 하다. 사진에 대한 정규 교육이 없었던 당시 가나의 상황에서, 사촌이자 인물사진가였던 JP 도두(JP Dodoo)의 실습생으로서 일하면서 사진을 배웠다. 1953년 스튜디오 에버 영을 오픈한 바너는 정교한 리터칭 기술로 사진 속의 인물들을 더 젊게 만들었다고 그때를 회고한다. 스튜디오의 이름은 젊음을 상징하는 북유럽의 여신 이두나(Iduna)와 ‘에버 영(Ever Young)’이라고 불리는 작은 숲에 관한 신화에서 영감을 받아 지어졌다. 어느 날, 가장 훌륭하고 풍요로운 사과 바구니를 가지고 있었던 이두나의 숲으로 늙고 지친 영웅이 들어와 자신의 늙어감을 한탄하자, 이두나는 그 영웅에게 사과를 건네 주었고 그것을 먹은 영웅이 다시 신선함과 젊은 활력을 되찾았다는 이야기이다. 그 이름에 걸맞게 에버 영 스튜디오는 아크라 사람들의 만남과 파티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커뮤니티 장소였다. 그곳은 항상 사람들이 찾아오는 풍요로운 이두나의 숲이자, 계속해서 끊임없이 채워지는 그녀의 바구니처럼 사람들과 함께 꿈꾸는 풍요로운 미래와 희망의 상징이었다.

1층 안쪽의 전시장에는 바너의 1950년대 에버 영 스튜디오 초기 초상들이 전시된다. 스튜디오 내부에서 인물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지만, 전기 공급이 불안했던 당시 가나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바너는 스튜디오 바깥의 자연광 또한 적극 활용하였다. 전형적인 스튜디오의 딱딱함에서 벗어난 에버 영 스튜디오에서 그는 갓 결혼한 신부, 젊은 여인, 간호사, 요기, 사무관, 배우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주변 사람들을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포착했다. 피사체의 우아함과 미를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는 한편, 그의 아름다운 스튜디오 초상 사진들은 1940년대 중후반의 범 아프리카 의회, 유럽 수입품 보이콧, 반식민 폭동, 가나 최초 대통령이자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은크루마(Kwame Nkrumah)에 의해 1950년대 초 창설된 회의인민당(CPP) 등 당시 가나의 변화하는 시대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골드코스트의 독립 전의 징후들을 뿜어내며, 그의 사진은 로컬적이고 본능적인 것, 자발적인 것과 정형화된 것, 무대화 된 것 사이에서 긴장을 연출한다. 영국의 신문 『데일리 그래픽(Daily Graphic)』과 반 인종 차별 정책의 플랫폼으로서 영향력이 있었던 남아프리카의 첫 패션·라이프 스타일 잡지인 『드럼(Drum)』 매거진의 프리랜서 사진가로 활약하면서 사진 매체의 스토리텔링의 측면을 실험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백인 사진가만 존재했던 상황 속에서 바너에게 주어진 혁명적인 기회였다. 가나의 곳곳을 누비며 로이 앙크라(Roy Ankrah)같은 유명 권투선수를 비롯하여 퍼레이드, 여름의 축제들, 그 지역의 커뮤니티 정신을 담아내며 점점 더 코스모폴리탄의 삶에 가까워져 가는 가나 사회의 일상을 그려냈다. 또한 가나의 독립이 일어나는 주요 역사적 시기에 은크루마같은 주요 인물들과 독립을 향해 가는 가나의 역사적 주요 순간들을 기록했다.

사진이라는 매체는 바너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기회와 도전을 새로운 배움으로 이어주는 운명같은 것이었으며, 당시 새로운 기술로서 현대에 적절한 매체였다. 변화하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 사진술을 더 깊이 배우고 싶었던 열정과 호기심은 평안했던 가나의 삶을 뒤로하고 1959년 그를 영국 이주로 이끈다. 1층 전시실 중심에 자리잡은 바너의 1960년대 작품들은 다문화 코스모폴리탄의 중심인 런던에서 『드럼』 매거진의 프리랜서 사진가로 활동하며 외부인의 호기심 어린 눈으로 런던의 1960년대 스윙(Swing)을 새롭게 포착한 사진들이다. 백인성이 두드러진 패션과 문화의 중심지에서 에린 이브렉(Erlin Ibreck), 마리 할로위(Marie Hallowi)같은 흑인 모델들을 포착한 그의 사진은 『드럼』 매거진의 표지로 등장하며 젊고 매력적인 아프리카 여성들의 품위 있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전했다. 새로운 미의 창조를 암시함과 동시에, 영국에서 자수성가한 정치적·사회적으로 중요한 가나 이주민들의 사진을 통해 전혀 주도적이지 않았으나 여전히 존재하고 그러기에 진실인 블랙(Black)의 경험들을 담아내었다. 그가 촬영한 1960년대 디아스포라의 초상들은 인물들의 안목 있는 스타일 뿐 아니라, 초기 흑인 운동 안에서의 그들의 희망과 끈질긴 인내를 담아낸다.

벽돌 벽에 반쯤 그림자를 드리운 젊은 흑인 목사를 찍은 바너의 초상을 보면 대단히 수준 높은 테크닉으로 완벽하고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지만, 그의 대부분의 초상들은 사생활이 침범된 피사체의 모습에서 슬며시 벗어나 웬지 모를 유동적인 자유로움을 느끼게 한다. 바너는 개인적이면서도 사진가로서의 프로페셔널한 삶을 잘 엮어나가는 탁월한 재능을 바탕으로 어떻게 그들의 이야기들을 말하고, 살아가고, 사랑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듯하다. 1층 전시장 중심에 자리잡은 작품, <Mike Eghan at Piccadilly Circus, London 1967>을 보면, 피사체는 삶의 원동력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미래의 희망을 그려낸다. 바너는 다른 곳에 존재함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권한과 대표성을 취하는 것으로 서구의 시선을 전환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듯 자유로우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힘있게 그들을 담아내었다. 가나와 영국이라는 두 다른 대륙 사이에서, 서구인의 시선이 아닌 아프리카인으로서 자신들의 초상을 담아내며, 그는 깊이 있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디아스포라 안의 인간 주체성에 대해 질문한다. 또한 장소를 넘어서서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어떠한 감각이 있는데, 그것은 식민지에서 포스트 식민지로 전환되어가며 디아스포라의 부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밖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해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서구의 시선을 힘과 재현의 도구인 사진이라는 것을 통해 다시 되돌린 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2층 전시실에는 1970년대에 가나로 다시 돌아온 바너가 컬러 사진 기술을 처음 보급시키며 연 그의 두번째 스튜디오 ‘스튜디오 X23’에서 촬영한 초상사진들과 파스텔 톤의 컬러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낯선 타지에서의 풍요로운 경험 후 새롭게 한층 섬세하게 다듬어진 감각으로 가나의 인물과 풍경을 담아 냈다. 우리에게 어떤 기억과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그의 사진들은 사진이 과거의 유물이며, 발생했던 일의 흔적을 환기시킨다. 우리의 기억들은 단순한 사건의 기록이 아닌, 언제나 깊은 내면으로부터 들춰내는 것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과정이며, 그러하기에 사진은 그냥 놔두면 소리 없이 사라질 사건들을 주목하고 기록하는 눈의 존재로서 기억의 능력과 연결된다. 바너의 사진은 시간을 되돌려, 우리의 현실을 재개념화하고, 작가주의적 내러티브를 새로이 부여한다. 또한 그의 작품은 식민지 통치부터 1960년대 전쟁 후 영국의 ‘스윙 식스티’, 사회혁명을 통한 자유의 획득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역사 속 진실의 단면들을 드러낸다. 만약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새롭게 드러난 과거의 단면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만약 과거의 기억들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면, 모든 사진은 그저 포착된 순간으로만 존재하는 대신 다시 삶의 맥락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다.

바너는 자신의 사진을 통해, 젊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무언가를 간직했으면 한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사진을 통해 인간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느낌을 갖고 싶다.”고 그는 말한다. 존경받는 가나인 건축가 데이비드 아디아예(David Adjaye), 영국 『보그』의 편집장 에드워드 으닌폴(Edward Enninfu), 세계적인 모델 나옴 캠펔(Naomi Campbell), 사진가 리즈 존슨 아르투르(Liz Johnson Arthur)와 타일러 미첼(Tyler Mitchell) 등 새로운 세대의 크리에이티브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친 제임스 바너의 작업들은 영감과 주체적인 창조적 힘의 원류가 되었다. 그의 사진은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는 역사와 현재, 미래 또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계속 변화하고 창조되는 영원한 새로움의 상징으로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

Forever Young, 영원한 젊음으로.

## 작가소개

---

제임스 바너(b.1929)는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태어나 인물사진, 포토 저널리즘, 패션, 음악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작업해 왔으며, 1993년 이래로 영국에서 살며 활동하고 있다. 2021년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에서의 회고전을 통해 1950-1980년대를 아우르는 사진 작품이 총체적으로 소개되었고, 이는 바너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의 작품은 뉴욕 현대 미술관 (MOMA), 미시간 디트로이트 미술관, 파리 퐁피두 현대 미술관, 파리 케 브랑리 박물관, 런던 빅토리아 앨버트 미술관, 런던 테이트 모던, 런던 국립 초상화 미술관 등 유수한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 SELECTED ACQUISITIONS

2021 MoMA, New York, USA /Centre Pompidou, Paris, FR / Smart Museum of Art, University of Chicago, Illinois, USA/  
Victoria and Albert Museum, London UK  
2020 Detroit Institute of Arts, Detroit, Michigan, USA  
2017 National Portrait Gallery, London, UK  
2016 Musée du quai Branly, Paris, FR  
2015 Tate Modern, London, UK/ Victoria and Albert Museum, London, UK

## SELECTED EXHIBITIONS

2021 *James Barnor, Accra/London - A Retrospective*, Serpentine North Gallery, London, UK Touring exhibition to  
continue in Museo d'Arte della Svizzera Italiana, Lugano, Switzerland (13 March - 19 June 2022) DIA, Detroit, MI,  
USA (28 May - 1 October 2023)  
2021 *James Barnor: Ghanaian Modernist*, Bristol Photo Festival, City Museum of Bristol, UK  
2019 *James Barnor - A retrospective*, Nubuke Foundation, Accra, Ghana  
2019 *Paris-Londres, Music Migrations (1962-1989)*, (group exhibition) Musée de la Porte Dorée, Paris, France 2017 *Ever*  
Young, Musée du quai Branly, Paris, France  
2017 *La Vie selon James Barnor/Life According to James Barnor* - Touring exhibition

11ème Rencontres de Bamako, Bamako, Mali.

Mupho, Musée de la Photographie, Saint Louis, Sénégal (2018); Gallery 1957, Accra, Ghana (2018); IF Johannesburg, South  
Africa (2020); CCF Windhoek, Namibia (2021)

To be continued in AF Gaborone, Botswana; AF Durban; AF Port Elizabeth; AF Potchefstroom;  
AF Lusaka, Zambia

2012 *Another London* (group exhibition), Tate Modern, London, UK

2010 *Ever Young: James Barnor* (Touring exhibition) Autograph ABP, Rivington Place, London, UK

W.E.B. Du Bois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Boston (2010)

South African National Gallery, Cape Town (2012); Impressions Gallery, York, UK (2013); Galerie Clémentine de la Féronnière,  
Paris (2015); BAND Gallery, Toronto (2016)

2007 *Mr Barnor's Independence Diaries*, Black Cultural Archives, London, UK



제임스 바너 <에버 영 *Ever Young*> 전시 설치 전경, 바라캇 컨템포러리



제임스 바너 <에버 영 *Ever Young*> 전시 설치 전경, 바라캇 컨템포러리





제임스 바너 <에버 영 *Ever Young*> 전시 설치 전경, 바라캇 컨템포러리



제임스 바너 <에버 영 *Ever Young*> 전시 설치 전경, 바라캇 컨템포러리



제임스 바너 <에버 영 *Ever Young*> 전시 설치 전경, 바라캇 컨템포러리





제임스 바너 <에버 영 *Ever Young*> 전시 설치 전경, 바라캇 컨템포러리



〈남성 배우로만 구성된 올라스 코메디언들, 아크라 제임스타운 에버영 스튜디오,  
*The Olas Comedians, an all-male troupe of actors, Accra, Jamestown, studio Ever Young*〉  
c. 1953-1954, GELATIN SILVER PRINT, 70 x 70 cm





〈에블린 애비의 초상화, 아크라지역 제임스타운 에버영 스튜디오 *Portrait of Evelyn Abbew, Accra, Jamestown, studio Ever Young*〉

c. 1954-1959, GELATIN SILVER PRINT, 24 x 30 cm





〈에블린 애비의 초상화, 아크라지역 제임스타운 에버영 스튜디오 *Portrait of Evelyn Abbew, Accra, Jamestown, studio Ever Young*〉

c. 1954-1959, GELATIN SILVER PRINT, 24 x 30 cm





〈트라팔가 광장의 에를린 이브렉 *Erlin Ibreck at Trafalgar Square*〉  
1966/67, Digital Fibre Print, 70 x 70 cm



〈AGIP 캘린더 모델 *AGIP Calendar Model*〉

1974, Digital Fibre Print, 70 x 70 cm





〈인형을 든 어린 소녀 *Young girl with a doll*〉

c. 1972, DIGITAL C-PRINT, 70 x 70 cm

Press release

---

## **James Barnor:** *Ever Young*

- First solo exhibition in Asia (Korea) to present the work of James Barnor, a Ghanaian photographer recognized as a pioneer in contemporary photography
- Sharing 34 exquisite works of black-and-white and color photography imbued with the warm touch and artistry of a photographer who captured desires and beauty that transcended time and place amid the fast-paced historical changes in Ghana from the 1950s to the 1980s
- A more than six-decade photographic career in which Barnor has not only documented the path toward Ghanaian independence in the 1950s and the Black experience in the post-war Britain of the 1960s, but also posed questions about post-colonialism in relation to the British diasporic perspective and provided a crucial historical frame
- A body of work that has forged a new post-colonial African identity and aesthetic by sharing a different African perspective on the Black communities that settled in London during the 1950s and 1960s
- Photographs that enable a reexamination of history from a subjective African perspective rather than recording it from a mainstream Western perspective

Barakat Contemporary proudly presents *Ever Young*, the first solo exhibition in Asia to share the work of Ghanaian-British photographer James Barnor, from Thursday, March 17 to Sunday, May 8, 2022.

Born in Accra in 1929, James Barnor has worked in a broad range of areas over a career spanning over six decades, including portrait photography and photojournalism. Using the photography genre to connect Africa with Britain, he has consistently created narratives that transcend culture. He is also Ghana's first photojournalist, someone who recorded the fast-paced societal changes that occurred as Ghana gained independence in the late 1950s.

"*Ever Young*" is the name of Barnor's first studio, which he opened in Accra in 1953, and it also symbolizes the novelty and abundance that he envisioned amid the rapidly changing currents in Ghana at the time. It can further be seen as conveying the sense of truth within history that his work provides us with today—as well as a message of hope that we might adopt a new perspective on the present through it. As an African photographer working between Ghana and the UK, Barnor has spent a lifetime creating an artistic body of work boasting a uniquely warm touch and artistry. His images show us moments from history that reflect Ghana's changing identity amid the societal transformations,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geopolitical developments of the 20th century's latter half, including the achievement of Ghanaian independence and

the diaspora culture of cosmopolitan London in the 1960s.

The first floor of the exhibition shows early portrait work from the James Barnor Studio and Ever Young studio in the 1950s, along with images created after Barnor relocated to London in the 1960s. Due to the crude conditions and unstable electricity supplies in Ghana at the time, the Ever Young photographs made active use of natural lighting outside the studio. Representing a departure from the typical rigid studio atmosphere, the Ever Young studio was a setting when Barnor photographed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professions in warm and natural ways, from newlyweds and young women to nurses, yogis, officials, and actors. The photographs seen at the center of the gallery—including *Drum Cover Girl Marie Hallowi*, *Rochester, Kent* and *Erlin Ibreck at Trafalgar Square*—represent a new perspective on the “swinging” London of the 1960s, shot by the curious eye of an outsider working as a freelance photographer for the South African magazine *DRUM* in the cosmopolitan, multicultural city. Featuring Black models such as Erlin Ibreck and Marie Hallowi in a city where the fashion and culture were predominantly white, his photographs appeared on the cover of *DRUM*, presenting a new, dignified beauty through young and attractive African women. The diaspora portraits that Barnor took in the 1960s—including *Mike Eghan at Piccadilly Circus*—reflect not only their discerning style, but also the hope and tenacity of figures taking part in the early Black rights movement. Barnor’s photographs helped forge a new post-colonial African identity and aesthetic as they presented the Black communities that settled in London during the 1950s and 1960s, showing them from a subjective African perspective rather than the white European perspective that was the mainstream among photographers at the time.

The second floor gallery features pastel-toned color photographs and portraits taken at Barnor’s second studio, called Studio X23, which he opened as he returned to Ghana in the 1970s and shared color photography technology there for the first time. After his rich experience in a foreign land, the photographer captured the people and landscapes of Ghana with a new, much more delicately refined touch. Awakening memories and nostalgia in the viewer, his images remind us that photography is a relic of the past, a mark left behind by things that have already happened. As they turn back the clock, Barnor’s photographs reconceptualize our reality today, introducing a new auteurist narrative. His work also shows unrevealed aspects of the truth within history, from colonial rule to the “swinging ’60s” in postwar Britain and the achievement of freedom through social revolution. All photographs exist as frozen moments, yet they can take on a different context of life as newly revealed fragments of the past come together with our own memories to create history. Through Barnor’s work from the 1950s to the 1980s, we can enjoy this meaningful experience.

## **James Barnor:** *Ever Young*

Barakat Contemporary proudly presents *Ever Young*, the first Korean solo exhibition by Ghanaian photographer James Barnor, from Thursday, March 17 to Sunday, May 8, 2022. In addition to being the name of Barnor's first studio, which opened in 1953 in Accra, "Ever Young" is also a symbol for the novelty and abundance that the artist envisioned amid the rapidly changing currents in Ghana at the time. It can further be seen as a message of hope: the desire that the truth of history that his work shares to us today can offer us a new lens for viewing the present. As an African artist, Barnor has spent his life working in Ghana and the UK to create a body of work boasting a uniquely warm touch and artistry. His images show us moments from history that reflect Ghana's changing identity amid the social transformations,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geopolitical developments of the late 20th century, including the country's achievement of independence, along with the diaspora culture of cosmopolitan London in the 1960s.

Born in Accra in 1929, James Barnor has worked in a broad range of areas over an artistic career spanning six decades, including portrait photography and photojournalism. He has consistently used the photography genre as a way of connecting Africa and the UK to create a narrative that transcends culture. Most notably, he was Ghana's first photojournalist, recording the rapid changes that his society experienced when the country gained independence in the late 1950s. Since no avenues for formal photography education were available in Ghana at the time, Barnor learned about photography while working as an apprentice to his cousin, the portrait photographer J.P. Dodoo. Barnor opened his studio *Ever Young* in 1953; he would later recall the sophisticated retouching techniques he used to make the figures in his photographs appear younger. The studio's name was inspired by Iduna, a Norse goddess symbolizing youth, and the legend of her small forest known as "Ever Young." Iduna carried a basket of the most amazing and abundant apples. One day, an old, weary hero arrived in her forest and lamented how he had aged. Iduna gave him an apple, and after eating it the hero regained his youth and vitality. Appropriately enough for such a name, the *Ever Young* studio was a special community setting where people in Accra would meet and enjoy parties. Like Iduna's abundant forest drawing endless visits and her inexhaustible basket of apples, the studio symbolized hope and people coming together to dream of a rich future.

In the inner gallery on the first floor, the early portraits from Barnor's *Ever Young* studio in the 1950s are on display. Barnor would sometimes take portraits inside his studio, but he also made active use of natural lighting outside the studio—an approach that stemmed from the crude conditions and unstable electricity supplies in Ghana at the time. Representing a departure from the typical rigid studio atmosphere, the *Ever Young* studio was a setting when Barnor photographed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professions in warm and natural ways, from newlyweds and young women to nurses, yogis, officials, and actors. In addition to showing their subjects' elegance and beauty to exquisite effect, his beautiful studio portrait images are also inseparable from the changes that Ghana was undergoing at the time: the Pan-African Congresses of the mid- to late 1940s, boycotts of European imports, the anti-colonial riots, and the early-



1950s establishment of the Convention People's Party (CPP) by independence movement leader Kwame Nkrumah, who would become Ghana's first President. Redolent with the foretokens of the Gold Coast's independence, his photographs capture a sense of tension between the local and instinctual, the self-directed and the standardized and staged. Barnor also worked as a freelance photographer for the British newspaper *Daily Graphic* which as South Africa's first fashion and lifestyle, and for the anti-Apartheid journal *Drum* magazine. Enabling him to experiment with the storytelling aspects of the photographic medium, this was a revolutionary opportunity for the artist at a time when photographers were more or less uniformly white. Barnor traveled throughout Ghana, capturing the ways in which the society was becoming increasingly cosmopolitan with his images of parades, summer festivals, local community spirit, and the renowned boxer Roy Ankrah. He also recorded key figures like Nkrumah and historic moments during a very important period when Ghana was gaining independence.

The photographic medium was a fateful thing in Barnor's life, transforming his ongoing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to new learning experiences. As a new technology at the time, it was also a medium well suited to modernity. In his drive and curiosity to venture out into the changing world and learn photography in greater depth, James Barnor walked away from his comfortable life in Ghana to relocate to the UK in 1959.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first floor gallery, his work from the 1960s consists of images that capture London's "swinging '60s" in a new way from the inquisitive perspective of an outsider working as a freelance photographer for *DRUM* in a cosmopolitan, multicultural city. Featuring Black models such as Erlin Ibreck and Marie Hallowi in a city where the fashion and culture were predominantly white, his photographs appeared on the cover of *DRUM*, presenting a new, dignified beauty through young and attractive African women. Beyond these gestures toward establishing a new concept of beauty, Barnor also took photographs of politically and socially prominent Ghanaian migrants who had become self-made successes in Britain, producing images of Black experiences that may not have been trailblazing—but that were still present, and all the more truthful for it. The diaspora portraits that Barnor took in the 1960s reflect not only their discerning style, but also the hope and tenacity of figures taking part in the early Black rights movement.

Barnor's photographs of a young Black minister half-covered in shadow against a brick wall, are perfectly composed and beautiful with exquisite technique. But most of his portraits evoke a sense of fluid freedom, deviating from the image of the subject captured in private moments. With his superlative gift for mixing his personal life with his professional one as a photographer, Barnor seems to know how his subjects live, love, and tell their stories. Looking at *Mike Eghan at Piccadilly Circus, London 1967*, which is found at the center of the first floor gallery, we can see how the subject perceives himself as a driving force in life, representing hope for the future. Barnor captures these people in natural and powerful ways, as if he grasps what it means to understand being in a different place and to transmute the Western gaze into something with authority and representativeness. Working between two different continents in Ghana and the UK, he presents their portraits from an African's perspective rather than a Westerner's, interrogating human subjectivity in a diasporic context from a profound and critical stance. There is an important sense

communicated to us that transcends place and time—one that has to do with the things that become part of the diaspora as colonies transform into post-colonies, the things that exist outside of that, what it means to be understood, and what it means to turn the Western gaze back around through photography as a tool of power and representation.

The second floor gallery features pastel-toned color photographs and portraits taken at Barnor's second studio, called Studio X23, which he opened as he returned to Ghana in the 1970s and shared color photography technology there for the first time. After his rich experience in a foreign land, the photographer captured the people and landscapes of Ghana with a new, much more delicately refined touch. Awakening memories and nostalgia in the viewer, his images remind us that photography is a relic of the past, a mark left behind by things that have already happened. Our memories are not mere records of events, but part of a dynamic process that transforms things summoned forth from deep within. In that sense, photography relates to the power of memory as a kind of "eye" that notes and records events that would quietly vanish if left to do so. As they turn back the clock, Barnor's photographs reconceptualize our reality, introducing a new auteurist narrative. His work also shows unrevealed aspects of the truth within history, from colonial rule to the "swinging '60s" in postwar Britain and the achievement of freedom through social revolution. If people living today accept those newly revealed fragments of the past as their own, and if there is something essential to the process by which past memories create history, it is that all photographs can take on a different context of life and carry on existing in our time despite their exercise as mere frozen moments.

Barnor has said that he hopes younger people can enjoy something through his photographs even after he is gone. "I want to feel like I did something for people through photography," he explained. His work has had a profound influence on a new generation of creatives, including the renowned Ghanaian architect David Adjaye, *British Vogue* editor-in-chief Edward Enninful, world-famous model Naomi Campbell, and photographers Liz Johnson Arthur and Tyler Mitchell. It has provided inspiration and a source of subjective creative power. His images will continue to exist as symbols of the eternally new: of seeing ourselves in new ways, of looking in new ways at history and the present and future—and of constant change and creation.

Ever young.

## About the artist

---

Born in 1929 in the Ghanaian capital city of Accra, James Barnor has worked in a broad range of areas including portrait photography, photojournalism, fashion, and music. He has been based in the UK since 1993. He came to global attention through a 2021 retrospective at London's Serpentine Galleries, which offered a comprehensive look at his work between the 1950s and 1980s. His work is included in the collections of numerous outstanding institutions including the Museum of Modern Art (MoMA) in New York, the Centre Pompidou and Musée du Quai Branly in Paris, and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Tate Modern, National Portrait Gallery in London.

## SELECTED ACQUISITIONS

2021 MoMA, New York, USA /Centre Pompidou, Paris, FR / Smart Museum of Art, University of Chicago, Illinois, USA/  
Victoria and Albert Museum, London UK  
2020 Detroit Institute of Arts, Detroit, Michigan, USA  
2017 National Portrait Gallery, London, UK  
2016 Musée du quai Branly, Paris, FR  
2015 Tate Modern, London, UK/ Victoria and Albert Museum, London, UK

## SELECTED EXHIBITIONS

2021 *James Barnor, Accra/London - A Retrospective*, Serpentine North Gallery, London, UK Touring exhibition to  
continue in Museo d'Arte della Svizzera Italiana, Lugano, Switzerland (13 March - 19 June 2022) DIA, Detroit, MI,  
USA (28 May - 1 October 2023)  
2021 *James Barnor: Ghanaian Modernist*, Bristol Photo Festival, City Museum of Bristol, UK  
2019 *James Barnor - A retrospective*, Nubuke Foundation, Accra, Ghana  
2019 *Paris-Londres, Music Migrations (1962-1989)*, (group exhibition) Musée de la Porte Dorée, Paris, France 2017 *Ever*  
Young, Musée du quai Branly, Paris, France  
2017 *La Vie selon James Barnor/Life According to James Barnor* - Touring exhibition

11ème Rencontres de Bamako, Bamako, Mali.

Mupho, Musée de la Photographie, Saint Louis, Sénégal (2018); Gallery 1957, Accra, Ghana (2018); IF Johannesburg, South  
Africa (2020); CCF Windhoek, Namibia (2021)

To be continued in AF Gaborone, Botswana; AF Durban; AF Port Elizabeth; AF Potchefstroom;  
AF Lusaka, Zambia

2012 *Another London* (group exhibition), Tate Modern, London, UK

2010 *Ever Young: James Barnor* (Touring exhibition) Autograph ABP, Rivington Place, London, UK

W.E.B. Du Bois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Boston (2010)

South African National Gallery, Cape Town (2012); Impressions Gallery, York, UK (2013); Galerie Clémentine de la Féronnière,  
Paris (2015); BAND Gallery, Toronto (2016)

2007 *Mr Barnor's Independence Diaries*, Black Cultural Archives, London, UK



«Ever Young» Barakat contemporary





«Ever Young» Barakat contemporary



«*Ever Young*» Barakat contemporary





◁Ever Young▷ Barakat contemporary



◁Ever Young▷ Barakat contemporary





*«Ever Young»* Barakat contemporary



*<The Olas Comedians, an all-male troupe of actors, Accra, Jamestown, studio Ever Young>*  
c. 1953-1954, GELATIN SILVER PRINT, 70 x 70 cm





*<Portrait of Evelyn Abbew, Accra, Jamestown, studio Ever Young>*  
c. 1954-1959, GELATIN SILVER PRINT, 24 x 30 cm





*<Portrait of Evelyn Abbew, Accra, Jamestown, studio Ever Young>*

c. 1954-1959, GELATIN SILVER PRINT, 24 x 30 cm





*«Erlin Ibreck at Trafalgar Square»*

1966/67, Digital Fibre Print, 70 x 70 cm



«AGIP Calendar Model»

1974, Digital Fibre Print, 70 x 70 cm





*⟨Young girl with a doll⟩*

c. 1972, DIGITAL C-PRINT, 70 x 70 cm